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20일 소방직 공무원 국어-A형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01. 다음 편지글에서 고쳐 쓸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머니께

할머니, 작년 여름에 함께 장터에 가서 갈치줄임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또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만두국과 떡볶기는 너무 맛있었어요. 할머니! 항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 여름 방학 때 뵈요.

- ① 갈치줄임 → 갈치조림
- ② 만두국 → 만둣국
- ③ 떡볶기 → 떡볶이
- ④ 뵈요 → 뵈오

0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문헌]

불·휘기·폰남·곤·부락·매아·니·월씩.

곳·도·코·여·름·하늬·니

:식·미기·폰·으·른·꺄·래아·니그·출·씩.

:내·히아·러·바·락·래·가늬·니

[현대 국어 풀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갑니다.

- ① 이어 적기가 적용되었다.
- ②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 ③ 주격 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 쓰였다.

03.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것은?

- ① 내일은 잊지 않고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 드려야겠다.
- ② 오늘도 할머니께서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셨다.
- ③ 선생님께서 누나와 함께 와도 좋다고 하셨다.
- ④ 큰아버지께서는 나를 무척 아끼셨다.

04.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은?

- ① 이 건물은 학교의 체육관이요, 그 옆 건물은 본관이다.
- ②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요, 친구이다.
- ③ 늦지 않게 빨리 오시오.
- ④ 이것은 책이 아니오.

0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심근성(深根性)’과 ‘천근성(淺根性)’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근성의 문화는 이념이나 정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대륙형 문화이며, 천근성의 문화는 이식과 수용·적응이 잘되는 해양성 섬 문화이다. 소나무 가지는 한번 꺾이고 부러지면 재생 불가능이지만 버들은 아무 데서나 새 가지가 돋는다. 이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깎깎한 소나무 문화와는 달리 버드나무는 뿌리가 얕으므로 오히려 덕을 본다.

- 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 ② 학생들은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편을 갈랐다.
- ③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 ④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06. ㉡~㉣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 ㉡, ㉢, ㉣, ㉤’ 같은 예사소리가 ‘㉠, ㉡, ㉢, ㉣, ㉤’ 같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된소리되기 또는 경음화라고 한다. 된소리되기의 종류로는 ㉠‘ㄱ, ㉡, ㉢’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어간 받침 ‘ㄴ, ㄹ’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ㄹ’로 끝나는 한자와 ‘㉡, ㉢, ㉤’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있는 체언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등이 있다.

- ① ㉠ : 잡고 → [잡꼬]
- ② ㉡ : 손재주 → [손째주]
- ③ ㉢ : 먹을 것 → [머글깁]
- ④ ㉣ : 갈등 → [갈똥]

07. ㉠,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장 속에 안겨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러한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은문장에는 ㉠명사절을 안은문장, ㉡관형절을 안은문장, 부사절을 안은문장, 서술절을 안은문장, 인용절을 안은문장이 있다.

- ① ㉠ 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녀를 떠올린다.
- ② ㉠ 오늘은 밖에 나가기가 싫다.
㉡ 누나는 마음이 넓다.
- ③ ㉠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다.
㉡ 꽃이 활짝 핀 봄을 기다린다.
- ④ ㉠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그녀의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08. 다음 글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튿날 출근 끝에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왼쪽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과를 올리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禮房)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잡인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제 온갖 깃발이며 삼현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동덩실 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 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졸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의 거동 보소.
“우리 사또님이 걸인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등을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마는’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듄시라고 하여라.”
- 작자 미상, 「춘향전(春香傳)」

- ①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서술자는 직접 말을 건네며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닉일이나 사름 올가.
내 막음 둘 뒤 업다. 어드러로 가жат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외히 올라가니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러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꺾의 가 빅 길히나 보랴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동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딴 가고 빈 비만 걸렸노고.
강천(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방동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노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야 못조를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꺾튼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막음의 머근 말숨 슬꺾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숨인들 어이흐며
정(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증은 엇디 썩듯던고.
어와, 허수(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쏜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거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 쿠니와 구존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0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특정한 시어를 반복해 안빈낙도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꿈에서 임과 재회하고 있다.
- ②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다.
- ③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 ④ 사공은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

11. 윗글의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은?

- ① 구름 ② 안개 ③ 일월 ④ 물결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가 발달하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그런데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지킬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표절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인용의 출처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의 과장·축소·왜곡 없이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인용은 출처 명시와는 무관하게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한다면 화자나 필자는 청자나 독자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나 필자는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를 ㉢지키고 준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2.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② ㉡ :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지 못하므로 '우선'으로 바꾼다.
- ③ ㉢ : 문맥을 고려하여 '생략'으로 교체한다.
- ④ ㉢ : 뒤의 단어와 의미상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13.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법과 작문의 절차 ② 화법과 작문의 목적
- ③ 화법과 작문의 기능 ④ 화법과 작문의 윤리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호오, 호오.”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 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이 아니었다.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껍질을 벗겨 주시면서도 “호오, 호오.” 입김을 불어 알맞게 식혀 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 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꿀꺽 삼키며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텄었다.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혹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나는 그것을 대문간에 들어서 자마자 알아맞힐 수가 있었다. 집안 전체가 썰렁했다. 썰렁하다는 건 실제의 기온과는 상관없는 순전히 마음의 느낌이었고, 이 마음의 느낌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고, 입고 다니는 옷에도 어머니의 입김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때 ‘다꾸앙’이나 달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멸치볶음, 콩자반 등등 반찬 가게에서 파는 도시락 찬만 가지고 다니는 아이를 속으로 무척 불쌍하게 여기고 나중엔 경멸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것이 지금까지 생각난다.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걸 허구한 날 먹는 아이가 마치 혈벗은 아이처럼 보였던 것이다.

어린 날, 내가 누렸던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날의 커다란 상처로부터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건, 입고 다니던 옷, 그리고 식구들 사이, 집안 속 가득히 고루 스며있던 어머니의 입김, 그 따스한 숨결이 어제인 듯 되살아난다. 그것을 빼놓고 평화란 상상도 할 수 없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슬퍼하지 않은 어린 날이 어디 있으랴. 다만 그런 일이 어머니의 입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과 평화로 회상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 내 자식들이나 내 손자들이 훗날 그들의 어린 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문득 궁금하고 한편 조심스러워진다.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보다는 내 손자들이 따뜻한 입김의 덕을 덜 보고 자라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허물만은 아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까지도 마스크이나 그 밖의 정보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대대로 물려오는 입김이 서린 가풍(家風)마저 소멸해 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부르고,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옷을 입고도 등이 따뜻하고 예쁘다.

다쳐서 피가 났을 때 입김보다는 충분한 소독과 적당한 약이 더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도 허전한 걸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입김이 주는 살아 있는 평화를 모르는 아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입김이란 곧 살아 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닐는지.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되리라. 숨결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

- 박완서, 「사랑의 입김」

14. 밑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내부의 이야기와 외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밑글의 ‘입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한다.
- ② 유년 시절의 추억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어 있다.
- ③ 요즘의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 ④ 물질적 풍요로 점점 그 중요성이 잊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20일 소방직 공무원 국어-A형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6. 다음 작품과 가장 관련 있는 한자성어는?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설워라커늘 짐을조차 지실까

- 정철, 「훈민가」

- ① 朋友有信 ② 長幼有序
③ 君臣有義 ④ 夫婦有別

※[17~18]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 마즈 휘여진 뒤를 뒤라셔 굽다턴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의 프를소나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흥노라

- 원천석

(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형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
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형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만정 ㉣에혈질 번 하괘라

- 작자 미상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중심 소재는 ‘뒤’이다.
② (나)의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
③ (다)는 종장의 길이가 길어진 시조 형식을 보여 준다.
④ (가)~(다)는 종장 첫 구에 음수의 제약을 갖고 있다.

18. 윗글에서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굽힐
② ㉡: 잘라 내어
③ ㉢: 목이 터져라
④ ㉣: 멍이 들

19. 다음 글의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낮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십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전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 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 버린 요즘, 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 ① 르네 마그리트의 생애
② 초현실주의 유파의 탄생
③ 현대미술과 상상력의 소멸
④ 데페이즈망에 대한 관심과 의의

20. ㉠과 같은 표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②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③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④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20일 소방직 공무원 국어-A형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④	②	①	②	②	①	①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①	③	②	③	③	④	④

01 ④ 어문규정-한글맞춤법

④ 뵈요(○) / 뵈요(×)

‘보다’의 피동사는 ‘보이다’이다. 그리고 모음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오면 ‘ㅛ’로 축약되므로 ‘보이다’의 준말은 ‘뵈다’이다. 그리고 ‘뵈(어간)+어(어미)=뵈어’의 활용에서, 모음 ‘ㅛ’ 뒤에 ‘-어’가 올 때에 ‘ㅛ’로 준대로 적는다. 따라서 ‘뵈+어요=뵈어요=뵈요’가 된다.

[오답 풀이]

① 갈치줄임 → 갈치조림

‘조림=조리(어근)+ㅁ (명사화 접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이때의 ‘조리다’는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는 뜻의 동사이다. 반면에, ‘줄이다’는 찌개나 국의 국물을 줄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생선을~’의 경우는 ‘조리다’와 어울려 쓰이는 것이 적합하며, ‘국물을 ~’의 경우는 ‘줄이다’와 어울려 쓰이는 것이 적합하다.

② 만두국 → 만둣국

‘만둣국’은 한자어 ‘만두(饅頭)’와 우리말 ‘국’의 합성명사로서, 뒷말의 첫소리가 [만두국/만둣국]으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은 받치어 표기한다.

③ 떡볶기 → 떡볶이

‘-기’와 ‘-이’는 용언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접미사인 점은 같지만 그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를 있다. 파생 접미사 ‘-기’는 대체로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고(읽기, 말하기, 줄넘기, 글짓기, 가지치기 등), 파생 접미사 ‘-이’는 대체로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먹이, 목걸이, 구이, 재떨이 등) 그러므로 음식명은 ‘떡+볶+~이’와 같은 구성으로 보아 ‘떡볶이’로 적는다. 만약 ‘떡볶기’로 적는다면 이는 ‘떡을 볶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 될 것이다.

02 ② 고전문법-중세국어의 특징

모음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다. 지문의 ‘남곤=남(ㄴ뉘생김 체언)+은(대조보조사)’, ‘부름매=부름+애(원인 부사격조사)’, ‘므른=물+은(대조보조사)’, ‘꺾믈래=꺾을+애(원인 부사격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ㄱ 양성모음+은(보조사)

ㄴ 음성모음+은(보조사)

ㄱ 양성모음+애(부사격조사)

ㄴ 음성모음+애(부사격조사)

[오답 풀이]

① 이어 적기(연철(連綴)) 표기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는 그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적었다.

[예] 기픈(꺾+은), 남곤(남+은), 부름매(부름+애), 식미(심+이), 기픈(꺾+은), 므른(물+은), 꺾믈래(꺾을+애), 그츨썩(꺾+을썩)

③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는 쓰이지 않았다. 주격조사 ‘가’는 17세기(근대 국어)에 등장한다.

☞ 중세 국어의 주격조사

ㄱ 자음 받침 뒤+이 [예] 식미(심+이),

ㅏ 모음 뒤+ㅣ

ㄴ 모음 ‘ㅣ’ 뒤+zero(생략) [예] 불취(불취+zero)

④ 방점은 소리의 높이인 성조(聲調)를 나타내는 것인데 각 음절의 왼쪽에 점을 찍지 않거나, 한 점, 또는 두 점을 찍어서 표기하였다.

ㄱ 무점(無點): 평성(平聲)

ㅏ 한 점: 거성(去聲)

ㄴ 두 점: 상성(上聲)

※ [참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표기상의 특징

① ‘중성부용초성(終聲不用初聲)’의 규정에 따른 받침 사용- [예] 곳

② 사잇소리 ‘ㄱ, ㄷ, ㅂ, ㅍ, ㅅ, ㅈ’을 사용

③ ‘ㄴ, ㅁ, ㄹ, ㅅ, ㅇ’ 등을 사용

④ 어두(語頭)에 겹자음(자음군) 보인다.

⑤ 이어 적기(連綴) 위주의 표기

⑥ 모음조화 철저

⑦ 표음적(연철) 표기와 방점(傍點) 사용

⑧ 사잇소리 표기가 훈민정음 언해본보다 더 원칙적으로 지켜졌다. - ‘ㄱ, ㄷ, ㅂ, ㅍ, ㅅ, ㅈ’ 등의 관형격 사잇소리가 쓰였으며, 유성음 사이에서 ‘ㅅ’이 쓰인 것은 언해본보다 엄격하다.

03 ① 현대문법-높임법

①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 동사 ‘드리다’를 사용한 객체높임 표현법이다.

[오답 풀이]

②, ③, ④는 모두 주체높임 표현이다.

②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서술어 ‘보내셨다’에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③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서술어 ‘하셨다’에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④ 주체인 ‘큰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서술어 ‘아끼셨다’에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04 ② 어문규정-한글맞춤법

② ~ 부부가 아니요, 친구이다. → ~ 부부가 아니요, 친구이다.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종결어미 ‘-오’로,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연결어미 ‘-요’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체육관+이(서술격조사의 어간)+요(연결어미)

③ 오(어간)+시(주체높임 선어말 어미)+오(종결어미)

④ 아니(어간)+오(종결어미)

05 ② 현대문법-어휘의 의미 관계: 문맥적 의미

제시문의 밑줄 친 ㉠의 ‘나누다’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의 ‘나누다’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20일 소방직 공무원 국어-A형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 ① 나누다: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
- ③ 나누다: 같은 핏줄을 타고나다.
- ④ 나누다: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06 ① 현대문법-음운의 변동

①의 '잡고[잡꼬]'는 'ㅂ'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손재주[손째주]'는 우리말 '손+재주'의 합성명사로서,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이소리현상이므로 제시 지문의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먹을 것[머글꺼]'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④ '갈등[갈똥]'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에 해당한다.

07 ① 현대문법-문장의 갈래: 안은문장

①의 ㉠은 '봄이 오기'에서 '오(어간)+기(명사형 어미)'의 구성으로 된 명사절이고, ㉡의 '공부하는'은 '공부하(어간)+는(관형사형 어미)'의 구성으로 된 관형절이다.

[오답 풀이]

- ② ㄱ㉠~나가기: 나가(어간)+기(명사형 어미) → 명사절
ㄴ㉡ 주어(누나는) 서술절(주어(마음이) 서술어(넋다) → 서술절
- ③ ㄱ㉠~입을: 입(어간)+을(관형사형 어미) → 관형절
ㄴ㉡~핀: 피(어간)+는(관형사형 어미) → 관형절
- ④ ㄱ㉠~범인임: 범인+이(서술격조사의 어간)+ㅁ(명사형 어미) → 명사절
ㄴ㉡~예쁘게: 예쁘(어간)+게(부사형 어미) → 부사절
'그녀는 생겼다'라는 문장 안에 '그녀가 예쁘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8 ③ 고전문학-고전소설: 서술상 특징

제시 장면은 어사또(이몽룡)이 본관 사또(변 사또)의 생일 잔칫 참석하는 부분으로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춘향전(春香傳)」에서 갈등 해소 부분은 암행어사 출두와 본관의 봉고파직, 춘향과 이몽룡의 재회의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 부분은 본관 사또(변 사또)의 생일 잔치 장면이다.
- ②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는 백성의 어려운 삶과 대조적인 화려한 생일 잔치에 대한 어사또의 심리를 편집자적 논평으로 직접 제시하였다.
- ④ '저 사령 거동 보소', '등을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는 서술자는 직접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문09~10]출전: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1. 해제: 이 작품은 정철이 지은 가사로, 작가가 조정에서 물러나 불우한 세월을 보내면서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지은 것이다. 「사미인곡」과 마찬가지로 조정의 정치를 근심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고 두 여인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 여인(갑녀)이 내용을 이끌어 가면서 길에서 만난 여인(을녀)에게 질문하며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조언하고 있다. 이 작품은 충신연주시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임금의 소명을 기다리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핵심정리

- 1)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정격 가사
- 2) 성격: 서정적, 여성적, 연모적, 충신연주시사
- 3) 운율: 3(4)·4조, 4음보 연속체
- 4) 제재: 임에 대한 그리움
- 5) 주제: 임금을 향한 그리움, 연군지정(戀君之情)
- 6) 특징: ①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함. ② 순우리말을 절묘하게 구사함.
- 7) 연대: 조선 선조(16세기 말)

3. 현대어 해석

(을녀)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니 임의 소식 전해 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고? 나무 바위 등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로 저렇게 끼어 있는고? 산천이 어두운데 일월을 어떻게 바라보며, 눈 앞의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 리나 되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으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고?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찬 잠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은고?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시름없이 오락가락 하니, 잠깐 사이에 힘이 지쳐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과 같이 곱던 얼굴이 반 넘어 늙었구나.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싣컷 사되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인들 어찌 하며, 정회(情懷)도 못 다 풀어 목마져 메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고?

아, 허황한 일이로다. 이 임이 어디 갔는고? 즉시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 있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서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임이 계신 창문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갑녀) 각시님, 달은커녕 곳은 비나 되십시오.

09 ② 고전문학-가사: 표현상 특징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과 이별한 여인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오답 풀이]

- ① '갑녀'와 '을녀' 두 여인이 등장해 두 여인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임(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충신연주시사의 대표작으로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특정한 시어를 반복이나 안빈낙도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므로 화자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20일 소방직 공무원 국어-A형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0 ④ 고전문학-가사: 작품의 내용 파악

‘사공은 어딴 가고 빈 빈만 걸렸노고’는 임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사공 없는 ‘빈 배’가 환기하는 외로움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빈 배’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공이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있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오던된 계성(鷄聲)의 증은 었디 썩듯던고’는 화자가 꿈에서 임과 재회한 것이다.
- ② ‘낮→디는 히(저녁)→밤둥(밤)→계성(닭이 우는 새벽)’으로의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다.
- ③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허니 오늘도 거의로다. 님일이나 사롬 올가’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님의 소식 전해 줄 사람이 올까?’이다. 따라서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11 ③ 고전문학-가사: 시어의 함축적 의미

③의 ‘일월’은 화자가 보고 싶어 하지만 볼 수 없는 임(임금)을 비유한 표현이다.

[오답 풀이]

화자는 높은 산에서도 임을 볼 수 없자 물가로 발길을 옮긴다. 혹시나 배를 타고 임에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름’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어 배를 타고 임에게 갈 수 없다. 이때 쓰인 ‘보름’과 ‘물결’은 앞서 나온 ‘구름’, ‘안개’와 그 의미 및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단절, 장애물을 의미하며, 표현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선조와 정철 자신을 이간질한 간신배들이라 할 수 있다.

12 ③ 비문학-고쳐 쓰기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표절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인용의 출처를 ‘생략(省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출처를 밝혀야 하며’, 또는 ‘출처를 표시(表示)/제시(提示)/명시(明示)해야 하며’ 등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 : ‘-므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이어지는 문장은 글쓴이의 주장이므로 ‘~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② ㉡ : ‘그런데’는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문맥상 앞 내용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지키기 이전에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어떤 일에 앞서서’의 뜻을 가진 ‘우선(于先)’이나 ‘먼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④ ㉣ : ‘준수(遵守)’는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키다’의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다.

13 ④ 비문학-글의 제목

글의 제목은 주제나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제시 글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상호 신뢰를 위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인식하고 준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14~15]출전: 박완서, 「사랑의 입김」

1. 해제: 이 글은 입김을 통해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수필이다. 외손자가 입김을 불어 달라고 부탁하자 글쓴이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불어 주는 입김으로 인해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앞으로의 세대는 이러한 입김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며 입김에 담긴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현대 수필
 - 2) 성격: 회상적, 비판적, 비유적
 - 3) 제재: 입김
 - 4) 주제: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

14 ① 현대문학-현대수필: 서술상 특징

제시 글의 앞 부분에서는 입김으로 인해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 있고, 뒤 부분에서는 입김이 사라져 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과거 경험의 회상 장면이 있으나, 내부의 이야기와 외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며, 인물의 성격 변화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 ④ 글쓴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불어 주는 입김으로 인해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15 ③ 비문학-중심 소재의 의미

‘입김’은 과거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중심 소재이다. 화자는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앞으로의 세대는 이러한 입김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의 아이들은 ‘입김’의 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꿀꺽 삼키며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뻗었다’는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② 제시 글의 앞 부분에서는 입김으로 인해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 있다.
- ④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태여 입김을 거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16 ② 고전문학-고시조: 적절한 한자성어

제시 작품은 정철의 「훈민가」 중 16수로, ‘반백자불부대(斑白者不負戴)’라는 제목이 붙은 것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경로사상(敬老思想)을 표현한 것이므로,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②의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적절하다.

- ① 봉우유신(朋友有信: 朋 벗 봉/友 벗 우/有 있을 유/信 믿을 신): 오륜(五倫)의 하나. 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이른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20일 소방직 공무원 국어-A형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② 장유유서(長幼有序: 長 길(어른) 장/幼 어릴 유/有 있을 유/序 차례서) 오륜(五倫)의 하나.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이른다.
- ③ 군신유의(君臣有義: 君 임금 군/臣 신하 신/有 있을 유/義 옳을 의): 오륜(五倫)의 하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을 이른다.
- ④ 부부유별(夫婦有別: 夫 지아비 부/婦 며느리 부/有 있을 유/別 나눌(다르다) 별): 오륜(五倫)의 하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각각의 직분이 있어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음을 이른다.

※[문17~18] 출전 작품 해설

(가) 원천석의 절의가

1) 해제: 초장의 ‘눈 마자 휘어진 닻’에서 ‘눈’은 새 왕조에 협력을 강요하는 압력, ‘휘어진’은 그 속에서 건디는 고충을 드러냈으며, 중장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 맞서지는 못하나마 은둔하여 절개를 지키는 유신들의 정신이 잘 형상화되었다.

2) 주제: 절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3) 현대어 풀이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하던가?

굽을(굽힐) 절개이면 눈 속에서도 푸를 것인가?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는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나) 황진이의 연정가(戀情歌)

1) 해제: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한 비유와 의태적 심상을 통해 호소력 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 기법이 매우 참신하고 생생한 인상을 주어 작품 전체에 신선한 느낌을 불어넣고 있다.

홀로 지새우는 동짓달 지나간 밤과 정든 임과 함께 덮는 춘풍 이불 사이의 거리감, 이러한 거리에서 서정적 자아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은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또 이에 서정적 자아의 그리움이 지닌 엄청난 배경과 공간, 그리고 그리움의 양이 웅숭웃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을 기다리며 한숨으로 지새우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이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잘 표현된 작품이다. 고려 속요인 '가시리', '서경별곡'과 현대의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매개하는 이별시의 절조라 하겠다.

2) 주제 :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

3) 현대어 풀이

동짓달 지나간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다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임이 오신 밤이면 굽이굽이 퍼리라

(다)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풍자시

1) 해제: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약육 강식(弱肉強食)을 풍자한 사설 시조로서, 백성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이 한족(漢族)이나 왜인(倭人), 북방 후진 민족 등 강대국의 침략에 직면하면 여지없이 굴복하고 마는 비굴한 태도를 그렸다.

2) 주제: 주제 : 약자에게는 강한 체 뽐내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한 양반계층 풍자

3) 현대어 풀이

두꺼비가 파리한 마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날랜 흰 송골매 한 마리가 떠 있으므로 가슴이 성뜩하여지고 철렁 내려앉아 펄적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로 나자빠졌구나.

다행스럽게도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동작이 둔한 놈이었다면 다쳐서 몸에 멍이 들 뻔하였구나.

17 ③ 고전문학-고시조: 시조의 형식 및 종합적 감상

사설시조는 시조 3장 중에서 초·중장은 대체로 엷시조의 중장(40자 이내)의 자수(字數)와 일치하고, 중장은 첫 3음절을 제외하고, 그 자수가 제한 없이 길어진 시조이다. (나)는 중장이 아닌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딛’는 내려 쌓인 ‘눈(시련과 고난) 때문에 흰 것처럼 보이는 대나무이다. 그래서 대나무가 곧게 뻗어 있지 않고 휘었다며 비난하는 이도 있지만, 화자는 만일 눈 속에 굽을 정도로 하찮은 절개라면 대나무가 눈 속에서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나무가 지닌 세한고절(歲寒孤節)로서의 품모를 예찬하고 있다.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통해 화자의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와 충절의 뜻을 드러내는 중심 소재이다.

② (나)의 화자는 임이 오신 짧은 밤에 ‘동지(冬至)~들 지나간 밤’의 허리를 펼쳐서 임과 함께 보내는 밤을 더 길게 하고 싶다는 뜻으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임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④ 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의 정형시로서, 각 구의 자수가 약간씩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중장 첫 구절은 반드시 3음절이어야 한다.

[참고] 시조의 형식상 갈래

① 평시조(平時調): 초·중·종장이 각 15자 내외, 총 45자 내외의 단형시조(短型時調)이다.

② 엷시조(時調): 평시조보다 초·중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이 자수(字數)가 무제한으로 길어지고 종장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중형시조(中型時調)를 말한다.

③ 사설시조(辭說時調): 평시조보다 초·중장이 제한 없이 길고 종장도 어느 정도 길어진 시조로, 장형시조(長型時調)이다.

18 ③ 고전문학-고시조: 어휘의 의미

③ ㉞의 ‘모처라’는 부사 ‘마침’의 옛말로서,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또는 공교롭게, 우연히, 다행히 등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 굽다: 한쪽으로 휘다.

제시 구절은 ‘굽을(굽힐) 절개’의 의미이다.

② ㉡: 버히다: 동사 ‘베다’의 옛말.

④ ㉢: 에혈: 명사 ‘어혈’의 옛말로서, 타박상으로 살 속에 피가 맺힘. 또는 그 피를 뜻한다.

19 ④ 비문학-글의 화제

‘화제(話題)’란 이야기의 주된 대상이다. 즉 이야기의 중심제재이며, ‘글이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에서 ‘무엇’에 해당한다.

첫째 단락에서는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를 소개하고, 둘째 단락에서는 마그리트의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 paysement)’을 관심의 대상으로서 화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셋째 단락에서는 ‘데페이즈망’의 의미, 표현법, 그리고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는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 글의 중심 화제는 ④의 ‘데페이즈망에 대한 관심과 의의’가 적절하다.

2020. 06. 20.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20 ④ 현대문학-현대시-표현기법

밑줄 친 ㉠은 단단함, 차가움의 이미지인 ‘무지개’의 결합한 모순된 역설적 표현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④의 ‘죽어도 아니 눈물 / 흘리오리다’의 표면적 의미(표현)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이면적 의미(의도)는 속으로 몹시 울 것이라는 표현으로서,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반어법이다.

[오답 풀이]

①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②의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③의 ‘찬란한 슬픔의 봄’ 등은 역설법이다.

역설법은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표면상으로는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듯하나 그 속에 절실한 뜻이 담기도록 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소리 없는 아우성’, ‘눈 뜬 장님’, ‘시를 쓰면 시가 아니다’ 등도 역설법의 예이다.

※출전: 이육사, 「절정(絶頂)」

1. 해제: 이 작품은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넉넉한 관조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강인함을 절제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치열한 내적 갈등의 결과, 자기 초월의 정신적 경지에 이른다. 한시의 전통적 구성법인 기승전결에 충실하고 언어에 있어서도 고도의 절제와 압축을 보여 주고 있다.

2. 핵심 정리

1) 성격: 의지적. 지사적. 남성적, 참여적

3) 구성상의 특징: 1, 2, 3, 연을 통해 식민지의 극한적인 상황이 차츰 고조되면서, 4연에서는 그 극대점에서 현실에 대한 시인의 냉철한 인식과 극복 의지가 표출된다.

-1연: 고통의 현실(수평적 한계)

-2연: 고통의 심화(수직적 한계)

-3연: 고통의 절정(심리적 한계)

-4연: 고통의 극복(현실 초극 의지)

4) 주제: 가혹한 현실을 초극(超克)[어려운 따위를 극복함]하려는 의지,